



연 세 대 학 교 총 여 학 생 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2123-3645 / 담당 총여학생회장

문서번호 : 총여학생회 제2013-03-02호

시행일자 : 2013. 3. 25

발 신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수 신 : 연세대학교 학생처

결 재 란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제 목 : 총여학생회 학생회실 내 북카페 조성 요청

1. 연세대학교 교육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존의 총여학생회실(학생회관 324호) 내 자치도서관을 북카페로 변경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자세한 기획안 및 예산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
4. 감사합니다.

불 임 1. 총여학생회실 내 북카페 기획안 및 예산

연 세 대 학 교 제 2 5 대 총 여 학 생 회



The 好 북카페 기획안

1. 목적

총여학생회실(학생회관 324호) 내에는 여성관련 도서가 구비되어있는 자치도서관(구. 페미니리)이 있습니다. 이 곳은 1999년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여성자치도서관입니다. 자치도서관 내에는 약 1000여 권 정도의 책과 300여권의 간행물이 있습니다. 시중에 절판된 책부터, 여성단체가 낸 잡지, 여성과 관련된 문학, 예술작품, 전기 등의 방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도서관은 학내에서 여성과 여성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고민하는 공간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관련 내용을 공부하는 공간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자치도서관(구. 페미니리)은 현재 미흡한 도서 관리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학우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학내외에서 좀 더 활발하게 여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치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의 도서관보다 북카페가 많은 학우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편안한 환경과 교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25대 총여학생회는 개인이 혼자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북카페라는 공간을 통한 세미나 진행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학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관련 담론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이 대중운동이 되어야한다는 기초 아래, 북카페는 단순히 여학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된 반성폭력 문제, 성매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학우들이 관련 서적을 자유롭게 읽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화를 돌아보며 열린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는 등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가하고자 합니다.

2. The 好 북카페 예산

번호	항목	세부항목	금액	비고
1	바닥	데크	1,500,000	400mm(높이)
2		전기 판넬	700,000	3000x4500mm
3		장판	280,000	3000x4500mm
4		걸레받이	100,000	
총 합계			₩2,580,000	